

현부지냐 vs 이전이냐...장흥군 신청사 건립 논란

안전진단 D등급에 재건축 불가피
신청사 내년 착공 2023년 준공 목표
군 "현부지 신축하면 예산절감 효과"
의회·일부 주민 "교통 불편...이전 검토"

15년 전부터 추진해온 장흥군 신청사 건립을 놓고 '현부지냐', '이전부지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장흥군에 따르면 1977년 건립된 청사가 오래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재건축이 불가피해졌다.

장흥군은 현부지에 400억원을 들여 총 연면적 1만5398㎡(4650평)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청사신축 건립기금 조례' 제정 이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청사정비계획 수립 용역, 주민 설문조사를 마친데 이어 건립기금 400

억원을 지난 2017년(50억원)부터 조성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군청사 신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기관·사회단체 대표 및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63%가 현부지 신축에 대해 찬성했다며 현부지 건립을 공식화했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분산 배치됐던 의회, 농업기술센터 등 20여개(보건소 제외)에 달하는 기관이 한 곳으로 모여 종합행정타운이 된다.

장흥군은 현청사 부지에 건립하면 매입비 15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지 일부를 기부받을 때 10년 이내 청사 부지로 활용한다는 조건부 무상양여였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장흥군의회와 일부 주민들은 현 청사 주변은 도로가 비좁아 주·정차에 큰 불편이 따른다며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로망 확충을 병행한 청사 신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무질서한 현청사 일대의 도시계획 정비가 안되면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청사 이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1977년 건립된 장흥군 청사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현 청사는 건립된 지 40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2003년 건립한 의회동은 C등급을 받았다. 또 낡고

비좁아 10개 실·과·소가 다른 곳에 분산 배치돼 군 정업무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잔디 메카' 장성군 지력 높여 '명품 잔디' 생산 6억원 투입 맞춤형 비료 지원



전국 최대 잔디 주산지인 장성군이 잔디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장성군 제공>

전국 최대의 잔디 생산지인 장성군이 명품 잔디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6억원을 들여 1100여 잔디농가에 비료 10만포를 이달 말까지 지원하는 '잔디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잔디 연작으로 약화된 지력을 개선시켜 품질 좋은 잔디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다.

잔디 비료는 유효 미생물의 서식을 도와 잔디의 생육을 촉진할 뿐 아니라 토양을 중화시켜 생산력을 높여준다. 비료지원은 대형업체로 선정된 장성군산림조합이 농가 별 재배 규모에 따라 비례해 공급한다. 전국 잔디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장성지역은 1339농가, 1352ha 면적에서 잔디를 재배하고 있다.

장성군은 잔디 생산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힘을 쏟았다.

지난 2012년에 '잔디임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이어 2013년에는 '친환경 고품질 장성잔디 명품화육성사업'을 유치해 친환경 고품질 잔디 재배 기반을 완성하고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잔디 톨백 지원사업'과 '잔디생산 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관광택시로 관광부흥 이끈다

발대식 갖고 개별·소규모 관광 대응
주요 관광지·맛집 안내 맞춤형 서비스

강진군이 개별·소규모 관광트렌드에 대응해 맞춤형 관광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이숙영 군수를 비롯한 위성식 군의회 의장,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대표, 관광택시 운전자, SNS 홍보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택시 발대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관광택시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개별 또는 소규모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강진이 초행길이라 운전이 힘들거나 관광지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어려운 관광객

들을 위해 추진됐다. 강진 관광택시 운전자는 평소 택시 영업을 하다가 관광객이 전화(1544-2834)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강진군 주요 관광지와 맛집 등을 안내하는 등 관광객 개별 맞춤형 1일 가이드로 활동한다.

여행지는 야경 및 포토존 등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과 계절별 코스를 지정해 운영하며, 관광객과 운전자가 협의하면 코스 조정이 가능하다.

강진 관광택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관광택시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2대 등 총 8대가 운행된다. 요금은 시간운임제로 기본 2시간 4만원, 3시간 5만원, 5시간 8만원, 8시간 12만원, 1일 15만원이다.

강영석 강진 관광택시 회장은 "강진을 널리 알릴



최근 열린 관광택시 발대식에서 이숙영 강진군수 등이 관광택시를 시승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며 "관광택시가 강진의 얼굴임을 잊지 않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영 강진군수는 "강진 관광택시는 관광객이 데미 교육을 이수한 현지 베테랑 드라이버가 안내

하는 맞춤형 관광서비스로 강진 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광택시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 강진의 이미지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 '착착'

타당성 조사 보고회·현장 실사
2024년 착공 목표 준비 분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에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

사 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장 실사를 했다.

에너지 국가산단은 2018년 8월 국토부가 발표한 특화산단으로 나주 혁신산단 인근에 3843억원을 투입, 183만7000㎡(약 57만평)를 조성한다.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맡는다. 오는 2022년 국가산단 지정 고시와 실시설계, 토지 매입을 거쳐 2024년 6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전남도와 나주시는 에너지수도의 비전, 에너지산업 4대 단지 완성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거점 산단으로 조성될 이곳은 한전 등 앵커기업(먼저 입주한 기업)과 연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등 기업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나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교통 인프라의 우수성과

지역 산단 및 농공단지의 높은 분양률,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른 혁신산단 기업 유치 활성화, 한전공대 설립 등 국가산단 조성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에너지 특화기업 집적화가 절실하고 입주 희망 기업의 산단 부족 현상이 적지 않다"며 "에너지 전용 국가산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산단 인근에 조성된 나주혁신산단은 총 212필지 중 77%인 176필지가 분양됐으며 내년 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나주시, 소형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나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20일까지 4개월간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매장 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 음식점으로 이 기간 납부 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오후 5시부터 전용 수거 용기로 배출하면 된다. 무상 수거료 음식점 약 1500여곳에서 6000만원 규모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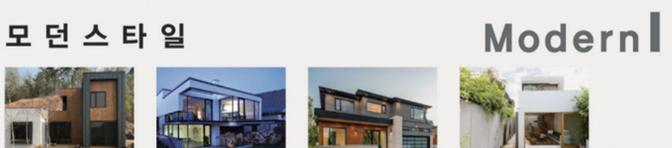
강인규 나주시장은 "사회적·생활적 거리두기로 매출 감소, 상권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형 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